

I. 서론

원불교학 성과의 회고와 전망

– 교단 제3대를 중심으로 –

권덕규, 국성천
(원광대학교, 원불교 정책연구소)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1. 원불교학 개념과 분류
 - 2. 원불교학 학회와 학술지
- III. 연구 대상 및 범위와 방법
 - 1. 연구 대상 및 범위
 - 2. 연구 방법
- IV. 분석결과
 - 1. 학술지별·시대별·원불교학 연구 관련 개괄
 - 2. 연구 동향 분석
- V. 원불교학 연구 성과의 평가 및 제언
- 참고문헌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 원불교는 1세기를 넘어 2세기를 맞는 동안 소태산 대종사가 개교의 동기에서 밝힌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물질문명을 선도하는 정신개벽에 앞장 서고자 종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부터 교리적 바탕을 통해 '보편 윤리'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또한 원불교학의 형성에 이바지 하였고, 그 체계를 다른 노력의 성과로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불교학은 1946년 유일학림을 시작으로 1952년 원광대학교 설립 이후, 원불교 관련 학교의 설립과 원불교학과의 개설, 그리고 원불교학 연구기관 설립하고 연구기관지를 발간해 왔다. 1965년 종교문제 연구소-『한국종교』(1971년), 1974년 원불교사상연구원-『원불교사상』(1974년, 현『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11년 마음인문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설치와 학술지 발간 그리고 1982년 신룡학회의『정신개벽』, 1996년 한국원불교학회의『원불교학』 등 관련 학회의 설립과 학회지 발간 등으로 다양한 학술의 장을 펼쳤다.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불교학 전공 연구자들은 방대한 분량의 연구물들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원불교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원불교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연구자는 그 결과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원불교학의 개념과 범주, 2) 원불교학 연구사, 3) 원불교학회지의 연구의 동향 분석, 4) 인접학문에 따른 원불교학과의 관계 정리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김성장(2013)은 원불교학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연구하며 원불교학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는 1974년『원불교학연구』⁶ 특집에서 원불교학의 정의를 논했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한기우의 원불교학의 기초개념 제시와 학문 분류, 유병덕의 원불교학의 방향과 교학 수립의 범위 및 방법, 서경전의 원불교학 연구 분야, 김홍철의 원불교학 연구 방법과 학적 체계, 송진은의 원불교학 연구 분야와 연구방법론 등을 언급하면서 원불교학 개념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고 원불교학 정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 동양 전통사상과의 관계, 2) 불교와의 관계정립, 3) 인접학문과의 학제간 연구 분야와 관계 설정, 4) 원불교교리사상의 보편화 작업, 5) 원불교학에 대한 연구방법론 개발 등을 언급하고 원불교학 범주 정의 22가지를 제시했다.²⁾

다음 원불교학의 연구사로 양은용(2016)은 1) 교의 체계화, 2) 학과 설치와 교과과정의 체계화, 3)

1) 개설 당시 1952년 교학과 이후 불교교육과를 거쳐 1970년에 원불교학과를 가지게 되었고, 1962년과 1972년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 설치, 1985년 영산선학대학교 개설, 1977년 원불교대학원대학교와 2002년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2002) 등의 교육기관을 비롯한 원불교학과 설립이 있었다. 특히 원광대학교 산하의 1957년 해외포교연구소-『Won-Buddhism』(1962년), 1965년 종교문제연구소-『한국종교』(1971년), 1974년 원불교사상연구원-『원불교사상』(1974년, 현『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11년 마음인문학연구소와 영산선학대학교의 2006년 소태산사상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및 학술지가 있다. 또한, 1965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의『교학연구』(현『원불교학연구』), 1982년 신룡학회의『정신개벽』, 1996년 한국원불교학회의『원불교학』, 1997년 일원문화연구재단의『원불교문화논총』, 2001년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실천교학』, 2012년 원불교교수협의회의『원평』 등 학회와 학회지가 있다(양은용,『원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67, 2016, pp.255-260; 원불교100년 기념성회집,『원불교 100년 총람』3, 2017 참고).

2) 김성장,『원불교학 연구의 당면 과제』,『원불교학』9, 2003;『원불교학의 형성과정과 개념』,『원불교개교백주년 기획』6, 2009;『원불교학의 범주와 개념연구』,『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5, 2013 참고.

연구기관의 설치, 4) 학회 결성 및 학술활동을 기반으로 연구 도구 개발, 연구지 발간, 교재개발, 자료집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언급하며, 원불교학 연구 활동 및 사업 등의 성과를 시대순으로 정리했다.³⁾

또한 양은용(2011)은 원불교사상연구원의 학술활동과 연구원에서 벌간하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를 정리했으며,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1982~2010)」를 비롯한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1979~2009), 월례연구발표회(1974~2010), 그 밖의 특별주제 학술대회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사상연구총서』, 『기념논문집』 등을 정리했다.⁴⁾

오세영(2021)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를 중심으로 1975년 제1집부터 2020년 12월 제86집까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원불교의 교리에 바탕 한 가치 추구를 교화·교육·자선으로 나누고, 원불교학·원불교교육학·원불교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연대별·주제별·연구 방법별·연구자별에 따라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원불교학 연구동향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했다.⁵⁾

마지막으로 인접 학문에 따른 원불교학 연구정리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학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오세영(2011)은 원불교사회복지학의 정의를 제시하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연구(2021)에서 제시했던 분석 방법들을 이용하여 그동안 원불교사회복지 연구를 총망라하고 분석하여 그 동향을 파악했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는 첫째, 원불교학 개념과 정립이 불확실성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된 결과로 원불교학 정체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의 「학술 연구분야 분류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원불교가 4대 종단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카톨릭에 비해 학문체계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학문 분야에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학문 분야에서도 원불교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체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학술DB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원불교학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의 분석 주제인 교화·교육·자선 분야로만 한정하여 종체적 학문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원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비단 세 가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전문학술분야에까지 두루 미쳐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원불교학의 성과 연구 방법은 서지학적 접근에서 통찰됨에 따라, 연구 동향과 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와 분석 방법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의 과제 도출과 발전 방향의 추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원불교학 정의 및 개념과 분류체계는 어떠한가? 둘째, 원불교학 연구는 양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셋째, 원불교학 연구 내용은 어떤 경향으로 발전했는가? 넷째, 원불교학 연구의 특징은 어떠한가? 다섯째, 원불교학 연구의 지속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서 마무리 할 것이다.

3) 양은용, 「원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67, 2016.

4) 양은용, 「원불교 학술활동의 현황과 과제:원불교사상연구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7, 2011.

5) 오세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9, 2021.

6) 오세영, 「원불교사회복지의 연구 동향과 학문적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0, 2011.

II. 이론적 고찰

1. 원불교학 개념과 분류

보통 불교학(佛教學)⁷⁾ 또는 신학(神學)은 종교학(宗教學, religious studies)으로서 기원, 역사, 신앙, 의식, 윤리, 실천, 종교간 관계 및 비교, 사회적 영향 등의 종합적 연구로 주로 교리와 방법에 관련된 연구를 의미한다. 이처럼 원불교학도 원불교의 '교리와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 개념 범주를 종교학 범주에 두고 있으나, 원불교학 그 자체의 학문적 개념 범주는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원불교학자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원불교학의 범주를 크게 교리 및 사상, 의식 및 의례, 교단사, 교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 기존 문헌에서 본 원불교학의 분류

저자	교학 분류	출처
한기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조학(소태산 대종사 연구) 교상학(타종교 비교 연구) 교의학(교리해석 연구) 교화학(교화 연구) 교의학(교례수행의식연구) 교단학(교단조직연구) 	
유병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립정신의 추구 경전주해 독자성의 발견 사관의 발굴 문제 중심의 해석 타사상과의 비교 사료의 정리 교단체제의 구조적 연구 교화기능의 분석 해석학적 체계화 교조 정신 	『원불교학의 기초개념』, 『원불교학연구』 6, 1974.
서경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리학(경전연구) 교사학(교단역사 연구) 의정학(교현, 예전, 교단행정학 연구) 교화학 	
교육 발전 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전교학(교서해석) 교리교학(교리, 사상적 이론) 역사교학(교단사) 	『원불교예비교부 교육발전안』, 1991.

7) 교학(教學)은 일반적으로 교법(教法), 교리(教理), 교체(教體), 교관(教觀) 등을 아우르는 종체적 개념으로 중국 불교의 종학과 한국 불교의 불학에 대응해 인도의 근본불교에 기초한 교리체계를 가리킨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267>).

	4. 실천교학(교리수행응용·교화현상응용 원리 계발)	
송천은	1. 교리	
	2. 교사	
	3. 교화	『열린시대의 종교사상』, 1992.
	4. 교정	
	5. 교의	
류성태	1. 경전교학	
	2. 교리교학	
	3. 교사교학	『원불교해석학』, 원불교출판사, 2007.
	4. 응용교학	
	5. 의례교학	
	6. 보조교학	
김성장	1. 기초교학	
	2. 원불교 경전학	
	3. 사상 및 교리학(이론교학)	
	4. 교의학(교리해석 및 주석)	
	5. 신양론	
	6. 수행론	
	7. 인과론	
	8. 교화학	
	9. 설교학	
	10. 원불교심리학 또는 교화상담학	
	11. 실증교학(신양, 수행 체험학)	『원불교학의 범주와 개념연구』, 『원불교
	12. 응용교학(기본학문체계 비교학)	사상과 종교문화』45, 2010.
	13. 원불교역사학	
	14. 교조학	
	15. 예전의례학	
	16. 성가학	
	17. 교현법제학	
	18. 원불교 선학	
	19. 원불교불공학	
	20. 원불교신문	
	21. 원불교문학	
	22. 원불교 사전학	

<표 1>의 분류는 대체로 종교의 요소에 해당한 범주에서 정의 및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전교학, 또는 경전학 경우, 교리와 사상에 대한 해석의 개념인지, 문헌 자체에 관한 개념인지 알 수 없다. 특히 교의교학의 교의는 보통 신학의 교의(Dogma, 教義)로, 이를 원불교학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학에서 교의와 교리는 그 개념이 구분되어 있으나,⁸⁾ 원불교학에서는 ‘교의(教義)=교리(教

8) 교리(教理 라틴어 doctrina, 영어 doctrine)는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뿐 아니라 이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뜻을 분명히 밝힌 모든 가르침을 가리키나 좁은 의미로는 교회가 그 가르침을 윤리, 사회,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킴을 말한다. 교의(教義, 라틴어 dogma, 영어 dogma)는 성서와 성전에 기초를 둔 믿을 교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진리들이다. 이 단어는 본시 그리스도의 ‘가르치자’(dokeo)라는 동사에서 유래되며 철학이나 법학에서 ‘가르침’, ‘율령’, ‘결의문’ 등의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단어를 신앙에 대한 권위 있는

理)’ 개념으로 혼재하고 있다. 또한, 교의(教義) 같은 경우, 종교의 의식에만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수행의 종교적 체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원불교학 학회와 학술지

주지하다시피, 원불교학 개념과 분류 속에 제시된 대표적인 학술지를 살펴보면, 주로 원불교학 연구 기관 설립 및 연구기관으로서 연구회 또는 학회와 연관이 있으며, 그 외에 종교연구 관련 학회와 학술지가 있다.

<표 2> 원불교학 관련 주요 학술지와 학회 및 기관(안)

관련구분	학술지명	관련 학회 및 기관	활동기간
교단 내	『원불교학연구』(구,『교학연구』)	교학연구회(원불교학연구회)	1965~2001년
	『한국종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1~현재까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구,『원불교사상』)	원불교사상연구원	1972~현재까지
	『정신개벽』	신룡교학회	1982~2012년
	『원불교학』	한국원불교학회	1996~2018년
교단 외	『신종교연구』	한국신종교학회	1999~현재까지
	『종교연구』(구,『한국종교학』)	한국종교학회	1970~현재까지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현재까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원불교 연구기관은 1965년 원불교 반백년을 전후로 많은 연구회가 창립되어 활동했다. 특히 그동안 원불교학 논문은 주로 교단 기관이었던 『원광』에 교리해설 성격의 글들이 제시되었으나, 『개교반백년기념문총』의 발간되면서 원불교학 연구의 성립을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

먼저 원불교학 연구의 효시는 1965년 ‘교학연구회’에서 원광대학교 교학대학의 예비교역자와 교수의 연구 논문이 게재될 수 있는 『교학연구』의 발간이며, 이는 예비교역자들의 연구력 증진과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⁹⁾ 이후 제4호까지 발간 후, 1972년에 『교학연구』를 『원불교학연구』로 변경하며 부정기적으로 활동을 해오다가,¹⁰⁾ 2001년 제29집 발행을 마지막으로 휴간되었다.

1967년에는 ‘종교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71년에는 『한국종교』가 발간되었다. 종교문제연구소는 비교종교학 또는 종교현상학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이후 특수종교학(종교민족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등으로 연구를 확장하며 종교현상을 학문으로 성립하는 데 목적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종교 현상을 조사 연구하며, 종교조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철학적·사상적 연구논문과 자료를 수록하고자 했고 특히 ‘신종교’라는 학문적 개념을 정착시켰다.¹¹⁾

가르침, 즉 믿을 교리라는 뜻으로 썼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시대의 철학이나 이단(異端)의 가르침과 구별하고 교회 신앙교리의 우월성을 밝혔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리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서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의 교도권이 가르치는 것이라야 하되, 이를 계시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라야 한다.(『한국기톨릭대사전』) 예를 들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은 많으나 종 가장 중요한 것만 교회가 교리로 선포하기 때문에 모든 교리는 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교리가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9) 『원불교신문』 2002년 4월 12일자, 「원불교학의 어제와 오늘」.

10) 『한국종교』, 장간호, 1971.

11) 『간행사』, 『원불교학연구』5, 1972.

1974년에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설립되었고 1975년에는 『원불교사상』이 발간되었다. 『원불교사상』은 원불교사상연구원 설립 목적과 그 궤를 같아했다. 세계 지성인들에게 교단의 독자적인 사상을 드러내고 본교의 사상을 밝혀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인류의 생명력을 전작하여 원불교학과 원불교사관 수립을 근간으로 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에 교리 중심의 사상연구, 사회문제를 통한 교화방향연구, 원불교 역사관의 확립으로 본 역사 문제 연구 등을 대상으로 매월 1차 월례연구회를 열고 다양한 학술적 문제를 개발하여 그 방향을 구명하는 하는데 목적하였다.¹²⁾ 또한 원불교학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국내외 연구학자들을 확보하고 생명·평화·환경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고자 노력하였고, 이후 1996년 창간된 『원불교학』과 합간하여 2004년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로 학술지명을 변경하였다.¹³⁾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¹⁴⁾되었고, 이후 2013년에는 등재지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1981년에는 신용교학회가 설립되었고 대산종법사님 훈증으로 발기인 모임을 갖은 후, 1982년에 『정신개벽』을 발간했으며 1997년 제16집까지 학술 활동이 진행되었다. 『정신개벽』은 교학연구에 뜻을 둔 젊은 대학원생(대학원 과정 이수) 교역자들과 이에 동참한 명예회원들로 구성되어 학술활동을 통해 교단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교학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¹⁵⁾ 그러나 중간에 휴간했지만 2011년부터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과 원불교 100년을 앞두고 실천교학의 의미를 살려¹⁶⁾ 교리의 연구풍토 조성과 토론의장을 펼치고자 속간했다. 『정신개벽』은 일원문화 창달에 기여, 교법정신에 바탕한 인성교육·도덕교육을 위한 마음공부의 이론 정립 및 실천활동, 인간화와 환경·생명·평화 등의 이념 및 실천교학 정립,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교법의 다양한 방법론과 실천교학 수립을 목표했다. 또한 학문의 발전적 담론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종교연합 및 제사회적 요구를 교법에 바탕한 이념의 공유 및 실천문화 확충을 목표하였다.¹⁷⁾ 그러나 원기 2011년 제17호를 마지막으로 발간하고 2012년 이후, 학술 활동은 정지된 상태다.

1995년에는 한국원불교학회가 창립되고 1996년에는 『원불교학』이 창간되었다. 한국원불교학회의 창립은 원불교학의 체계화 및 영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인근 학문 연구를 포함하여 전국 단위 학회의 필요성과 국제적 원불교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함¹⁸⁾이었다. 이처럼 『원불교학』은 원불교학연구의 각 분야 사상과 연계 관계를 다루면서도 원불교학 위상 정립을 위한 종합적 검토에서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2003년 제9집까지 발행되었지만 중간에 휴간하였고, 이후 한국원불교학회가 원불교사상연구원과 통합돼 학회만 유지해 오다가 2018년에 다시 제10집을 마지막으로 발행한 후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교단 외, 원불교학과 관련된 학회와 학술지를 살펴보면 1999년에 창립된 한국신종교학회와 『신종교연구』가 있다. 『신종교연구』는 한국과 세계의 신종교 연구와 조사를 위해 매년 2회 출간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종교는 물론 해외 신종교의 흐름과 특징을 소개하고,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객관적이며 공감적이고 비교적인 학제 간 경험연구를 지향¹⁹⁾한다.

12) 원불교사상연구원, 「서문」, 『원불교사상』, 1975.

13) 원불교사상연구원(편), 「간행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27, 2004.

14) 『원불교신문』 2008년 1월 18일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선정』.

15) 『원불교신문』 1982년 11월 16일자, 「신용교학회 편찬, 『정신개벽』」.

16) 『원불교신문』 2011년 11월 25일자, 「정신개벽 17집」.

17) 『원불교신문』 2011년 11월 25일자, 「신종교학회 활동 재개」.

18) 『원불교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한국원불교학회창립」.

19) 한국신종교학회 (<http://www.newreligions.org/board01/list.asp>)

1970년 '한국종교학회'는 카톨릭·기독교·불교·유교 등 각 종교단체의 학자들은 물론 철학·문화인류학·심리학·종교학 등 관련 학문의 분야 학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포용하여 발족하였다.²⁰⁾ 이에 1972년 『한국종교학』을 창간했지만 1년 만에 휴간하고 1986년에 『종교연구』로 변경함으로써 현재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1995년에는 '한국종교교육학회'가 '불교를 위시하여 종교교육학에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학문적 발전과 종교교육 실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²¹⁾을 목적으로 창립했다.²²⁾ 이에 『종교교육학연구』를 창간하고 지금까지 꾸준한 학술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III. 연구 대상 및 범위와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원불교 제3대, 1988~2023(원기 73~108년)의 36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원불교학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를 포함한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데이터로 정리하였다. 다만, 원불교 제3대의 시간적 범위는 1988년부터 2023년까지이나 제3대 이전부터 10년 단위 및 대(36년)와 회(12년)별 연구분석을 위해 1971년부터 2023년까지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논문검색은 '원불교'를 키워드로 했으며,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자료를 중심으로 3,422편의 학술논문(한국학술정보(KISS), DBpia, KCI 포함)이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된 자료, 서평, 원보,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원불교 관련 연구가 아닌 논문 등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445편의 연구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 의해 검색된 논문을 해당 연도와 기관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판단하여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다만 원불교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된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DBpia, KCI, 교보문고스콜라, 학술교육원 등)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학술지의 논문 일부는 누락될 수 있다.

원불교학 논문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로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38편, 『원불교학』 146편, 『정신개벽』 94편, 『종교교육학연구』 58편, 『한국종교』 56편, 『신종교연구』 48편, 『종교연구』 23편 등이고, 기타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은 총 182편으로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이 10편 미만인 경우 기타에 포함시켰다. 기타에 포함된 학술지는 『사회사상과 문화』, 『한국교수불자연학회지』, 『동서철학연구』, 『선학』, 『도교문화연구』, 『동학학보』, 『유학연구』,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인문학연구소』, 『한국종교사연구』, 『공간과 사회』, 『동양철학연구』, 『인문학연구』, 『종교문화연구』, 『종교문화비평』, 『차문화산업학』, 『한국불교학』, 『효학연구』 등 다수이다.

20) 『경향신문』 1970년 2월 21일자, 「한국 종교학회 3월 창립 관련분야 학자들도 포함」.

21)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칙」 (<http://www.kasre.or.kr/?c=1/45>).

22) 『한겨레신문』 1995년 6월 23일자, 「종교교육학회」.

2. 연구 방법

가. 대상 분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학의 시대별, 기관별, 연구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 연구논문의 저자, 발행 연도, 연구 주제, 저자 소속(1저자 기준), 학술지명, 발행기관 등을 데이터화 했다. 또한 각 연구논문의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기 위해 원불교학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설정했다. 원불교학의 분류 방식은 원불교학 분류 관련 연구(김성장, 2002; 김성장, 2009; 오세영, 2011; 양은용, 2016)를 바탕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여 <표 2>와 같이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표 3> 원불교학 범주와 개념 제시(안)

대분류	정의
교의교학	<input type="checkbox"/> 기본 교리와 7대 교서의 경전을 바탕한 연구로, 교리의 이론·해석 및 정리와 철학적·사상적 정립을 추구한 연구 성과
실천교학	<input type="checkbox"/> 사회성과 현세성에 바탕하며 교단이 지향할 활동의 학문 연구로, 교화·교육·자선·복지 등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와 개발 등의 연구 성과
실증교학	<input type="checkbox"/> 교리를 바탕한 신앙·수행 생활의 체험 연구로, 본질과 방법에 관련한 이론과 개발 등의 연구 성과
응용교학	<input type="checkbox"/> 원불교학과 일반학문 및 학술 분야의 연계성을 지닌 연구로, 크게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학문 및 학술 연구 성과
교사교학	<input type="checkbox"/> 역사적 현상에 대응하여 원불교 활동의 제반 조사 연구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료와 검증을 통한 과정의 사실을 규명한 연구 성과

교의교학은 교리를 본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교리 이론 중심의 해석 또는 사상적 근거를 정립하고 체계를 성립하는 연구다. 실천교학은 본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 사명으로 전개된 모든 활동에 대한 연구로 교단이 지향하고자 하는 교단 사업 즉, 교화·교육·자선·복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증교학은 교리를 바탕한 신앙·수행의 직접적인 체험에 관한 것으로, 그 이론과 방법 그리고 개발 분야의 연구를 말한다. 응용교학은 한국 학문 분류체계에 입각한 7대(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의학·농수해양학·예술체육학 등)분야와 연관된 연구다. 교사교학은 교단적 역사 근거에 바탕한 기초적 사실을 시대적 대응과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는 연구다.

<표 4> 원불교학 분류표(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교의교학	일원상론	일원상	
	신앙론	사은	
		사요	
		신앙	
	수행론	삼학	

		팔조	
		수행	
	사대강령	사대강령	
		일상수행의 요법	
		훈련법	
		엄불법	
		좌선법	좌선-무시선
		의두성리	
		일기법	
		무시선법	
		참회문	
		심고기도	
		불공법	
		계문	
		출성요론	
		최초법어	
		고락법문	
		병든사회치료법	
		영육쌍전	
		법의등급	
		개교표어	
		교리도	
		교리개론	
		정전	경전의 교리 구조 등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대산종사법어	
		불조요경	
		예전	
		세전	
		초기교서	
		기타	
		불교	원불교 교리중심의 해석 및 원불교와의 관계
		유교	
		도교	
		한국철학	증산교, 천도교 등
		동양철학	유교, 불교, 도교 등
		서양철학	
		자연환경관	자연생명, 환경, 생태 등
		우주관	
		생명관	인간윤리, 즐기세포, 낙태 등
		윤리도덕관	
		인간관	인종, 남녀평등, 효,
		교단관	시대정신, 회상, 혁신
		교육관	예비교부, 전무출신
		생사관	
		개벽사상관	
		경륜관	
	교단학	교단학	교단의 방향성 제시 등
		교화단	
		교도훈련	
		설교	강연, 회화, 법설, 등
		교당운영	
		마음공부	
		일반교화	

의례의식학	청소년교화	
	청년교화	
	해외교화	국제
	종교연합운동	UR운동
	평화학	평화, 사드, 핵, 전쟁, 남북, NGO
	교화학	교화 전반에 대한 제언
	법회	
	천도	
	사축이재	
	성가	
교단운영학	가례	
	교례	
	행정	원티스, 회계, 법인, 후생복지 등
	조직	총부, 수위단, 총부/교구/교당 등
	교무	
	교도	
실증교학	법제	
	후생, 복지	
	법위(사정)론	법위(사정)
	견성	견성
	의무성리	의무성리
응용교학	천도 사례	천도 사례
	신앙수행체험	신앙수행체험
	심리상담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종교교육, 일반교육
	건축학	종교사회학, 일반사회학
	신문방송학	교단, 교당 건축
	행정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	정제학
	비교종교학	정책학
	동양종교	동양종교
	서양종교	서양종교
교사교학	미술	
	의복	
	문학	
	다도	
	영상(디지털, 영화)	
	공연예술	
	출판	
	기타	
	언어	
	문학	
의학과학	의학	
	과학	
민속학	민속학	
	해석학	종교/문화/사회해학학
연구분석	연구사	연구사 정리, 연구 동향 분석
	연구방법	
인물사	교조	
	선진	

교단사	조직변천	
	교단사	
유물사	유물, 성비, 성탑	
유적사	건축, 성지,	
교리사	교리변천	
문헌사	기록, 보고서,	
시대사	한국사, 세계사, 종교사	

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원불교학 연구가 시대에 따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화 연구논문을 비교·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시대별, 연구주제별, 연구기관별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비교하였다. 원불교학 연구논문의 시대별 분석을 위해 1971~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23년으로 10년씩 시대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원불교 제3대 각 회별 연구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제3대 이전: 1971~1987년, 제3대 제1회: 1988~1999년, 제3대 제2회: 2000~2011년, 제3대 3회: 2012~2023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성과를 비교하였다.

주제별 연구성과 분석은 원불교학 분류표에 따라 대분류별 연구성과 비교와 대분류 내 중분류/소분류별 연구성과를 비교하였다. 각 연구기관별 비교분석은 교육기관(원광대학교, 영산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을 중심으로, 연구기관(원불교사상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마음인문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비교하였다. 원광대학교의 경우는 원불교학과와 원불교학과를 제외한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철학과를 포함한 원광대학교 내 모든 학과)를 나누어 연구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원불교기관의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원불교 관련 연구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어떠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량화하였다. 외부기관의 범주는 원불교의 육영기관 및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원불교기관 포함)의 연구자가 원불교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적으로 원불교학 연구의 시대에 따른 지속성 또는 방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기에 따른 연구주제별 연구 비교, 시대에 따른 각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기관은 어떠한 연구를 주로 다루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각 연구 기관별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대상 및 범위와 방법

1. 학술지별·시대별 원불교학 연구논문 개괄

주제별 본 장에서는 시대별, 기관별, 연구주제별 연구 결과의 기술에 앞서 연구분석에 활용된 연구논문의 주된 계체 학술지의 연구주제(대분류)와 시대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여 연구결과의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표 5> 학술지별 원불교학 대분류에 따른 논문 수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16	162	1	162	97	838
원불교학	75	28	1	30	12	146
정신개벽	40	19	0	23	12	94
종교교육학연구	18	8	0	32	0	58
한국종교	29	9	0	15	3	56
신종교연구	19	6	0	20	3	48
종교연구	8	5	0	8	2	23
기타	50	33	2	81	16	182
합계	655	268	4	371	145	1,445

원불교학 대분류에 따른 전체 논문 수를 살펴보면 교의교학 논문이 65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응용교학 371편, 실천교학 268편, 교사교학 145편, 실증교학 4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 전체 논문 수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가 83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불교학』 146편, 『정신개벽』 94편, 『종교교육학연구』 58편, 『한국종교』 56편, 『신종교연구』 48편, 『종교연구』 23편, 기타 182편으로 나타났다(표 5).

학술지별 원불교학 대분류로 보면, ①『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는 교의교학>실천교학=응용교학>교사교학>실증교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②『원불교학』은 교의교학>응용교학>실천교학>교사교학>실증교학 순이며, ③『정신개벽』은 교의교학>응용교학>실천교학>교사교학>실증교학 순으로 나타났다. ④『종교교육학연구』에서는 응용교학이 가장 높게, 실천교학과 실증교학이 낮게 나왔으며, ⑤『한국종교』는 교의교학이 가장 높게, 교사교학과 실증교학이 낮게 나타났다. ⑥『신종교연구』에서는 응용교학이 가장 높게, 교사교학과 실천교학이 낮게 나타났으며, ⑦『종교연구』에서는 교의교학과 응용교학이 가장 높게, 교사교학과 실증교학이 낮게 나타났다.

특징을 살펴보면, 교단 내 원불교학 관련 학술지는 각 학회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창간되었지만, 여전히 교의교학에 집중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원불교학』은 원불교학연구의 각 분야별 사상과 연계 관계를 위한 목적을, 『한국종교』는 한국인의 종교 인식·형태 조사 등의 목적을 갖지만, 교의교학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학술지 대비, 실증교학 분야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표 6> 학술지별 시대에 따른 논문수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총합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8	108	215	178	229	80	838
원불교학	0	0	92	47	7	0	146
정신개벽	0	41	42	0	11	0	94
종교교육학연구	0	0	11	16	26	5	58
한국종교	3	8	8	5	19	13	56
신종교연구	0	0	0	11	30	7	48
종교연구	0	0	3	9	7	4	23
기타	0	6	20	52	82	22	182
합계	31	163	391	318	411	131	1,445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학술지별 시대에 따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2010년대에 연구논문이 41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990년대 391편, 2000년대 318편, 1980년대 163편, 1970년대 31편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로는 ①『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는 2010년대>1990년대>2000년대>1908년대>2020년대>1970년대 순으로, ②『원불교학』은 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개벽』은 1990년대>1980년대>2010년대>1970년대>2020년대 순으로, 『종교교육학연구』는 2010년대>2000년대>1990년대>202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종교』는 2010년대>2020년대>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1970년대 순이며, 『신종교연구』는 2010년대>2000년대>2020년대 순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기타로는 2010년대>2000년대>1990년대>2020년대>198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에 따른 특징을 보면, 교단 내 원불교학 관련 학술지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를 제외하면 저널 게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전반적인 종교 관련의 학술지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난 상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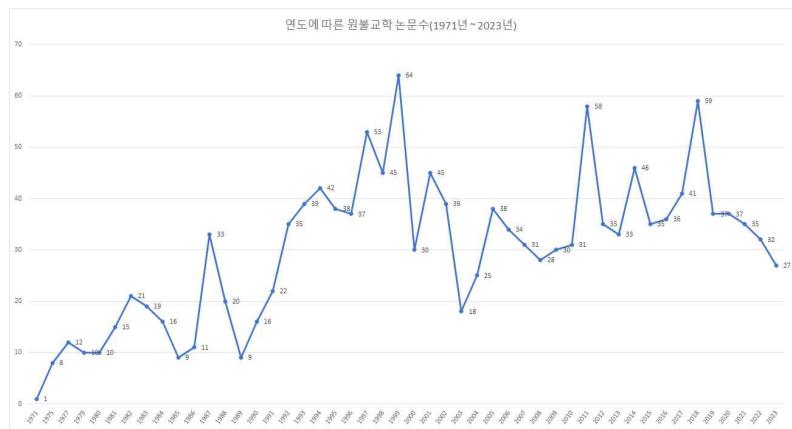
2. 연구 동향 분석

가. 시대별 원불교학 연구의 양적 분석

1) 시대별 원불교학 연구 성과

1971년부터 2023년까지 원불교학을 주제로 약 1,44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3대 기간(1988~2023년)에는 총 1,28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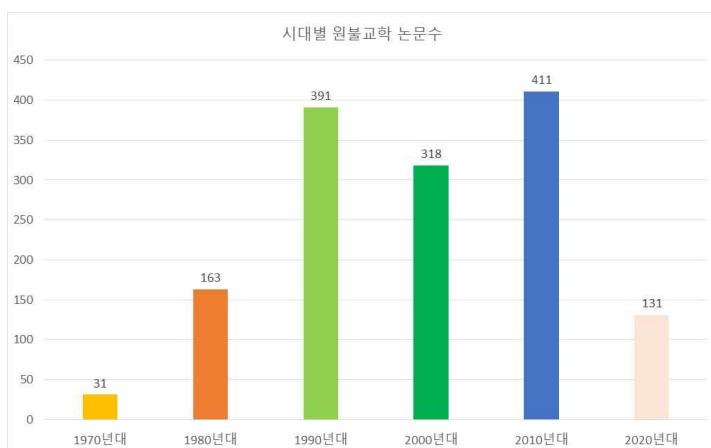
<그림 1> 연도에 따른 원불교학 논문 수



총 1,445편의 논문 중에는 1999년에 가장 많은 연구논문(64편)이 게재되었고, 2018년 59편, 2011년 58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1971년(1편), 1975년(8편), 1985년(9편), 1989년(9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논문이 게재되었다(그림 1).

지난 53년간(1971년~2023년)의 원불교학 논문 게재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27편정도 되었으며, 원기 65년(1980)부터는 매년 평균 10편 이상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단 3대 시기(1988년~2023년)에는 매년 평균 약 36편 정도가 게재되었으며, 게재율은 교단 3대 초기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며 3대 말에는 연간 평균 약 38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그림 2> 시기별 원불교학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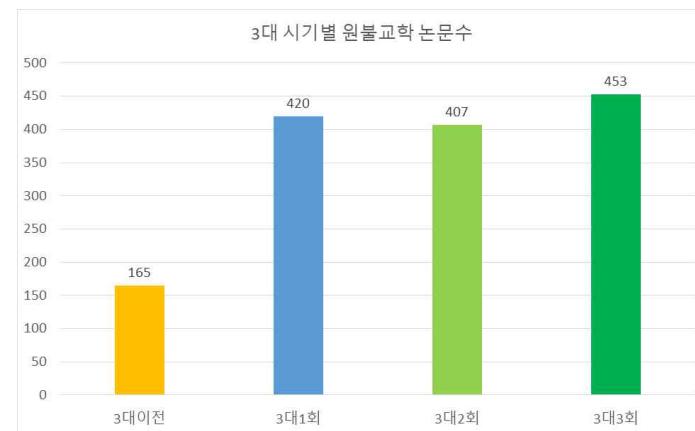


교단 3대 회별(제1~3회) 연구논문 비교에 앞서, 시기별 연구논문 게재 수를 비교하였다(그림 2). 시기별로 10년씩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970년에는 31편, 1980년대에는 163편, 1990년대에는 391편, 2000년대에는 318편, 2010년에는 411편, 2020년대 2023년까지 131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어, 1990년 이후부터 30년간 매 10년을 기준으로 평균 약 373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 지난 30년 중, 2010년에 411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2020년대는 2023년까지 4년간의 논문(131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므로 약 2.5배수로 예측하였을 때 2020년대에는 약 328편의 연구성과가 기대되어, 지난 30년(1990년~2010년)의 평균 편수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1990년대부터 시대별 연구논문의 양적 성과에 대한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교단 제3대 시기별 원불교학 연구 성과

<그림 3> 제3대 시기별 원불교학 논문 수



교단 제3대 제1회(1988~1999년), 제3대 제2회(2000~2011년), 제3대 제3회(2012~2023년) 중, 회별 연구 성과를 비교하면 제3대 제3회가 453편으로 가장 많고, 제3대 제2회는 407편으로 가장 적었다. 3대 기간에는 회별 평균 논문 수가 약 427편으로 제3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면, 제3대 이전 165편에 비해 제3대는 약 2.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연구 성과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3대 전반의 회별 연구논문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²³⁾ 앞서 연도별 결과처럼 회별 연구 성과가 비슷하다는 것은 회가 거듭될수록 원불교학의 양적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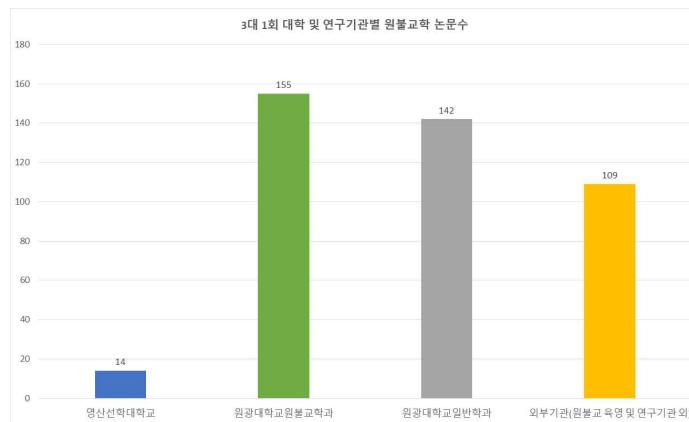
이는 교단 제3대 기간 동안 원불교 교세 및 원불교학 연구자들의 양적 성장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학문적 발전을 고려하였을 때, 원불교학의 연구가 제 3대에 들어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후 36년 동안은 정체 현상이 나타났음으로 보여 진다. 이는 이후 기관별 연구 성과 비교에서 원불교 자체 기관

23) 제3대 제3회 연평균 논문 수는 약 38편임.

의 연구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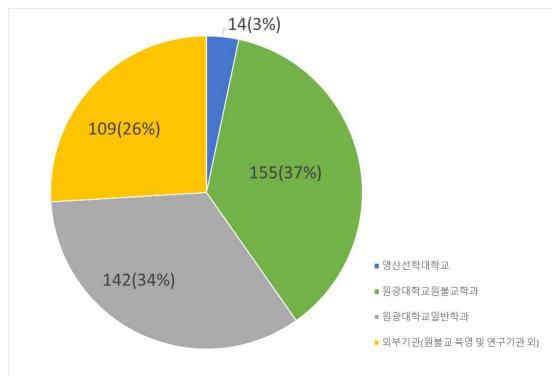
(1) 제3대 제1회 기관별-연구주제별 연구성과

<그림 4> 제3대 1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와 비율



제3대 제1회(1988~1999년)에는 원불교학 연구기관으로 영산선학대학교를 비롯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철학과, 역사학과 등을 포함한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 외부의 연구자(교당 및 기관 근무 연구자, 외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에 의해 420편의 원불교학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155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영산선학대학교는 14편으로 가장 적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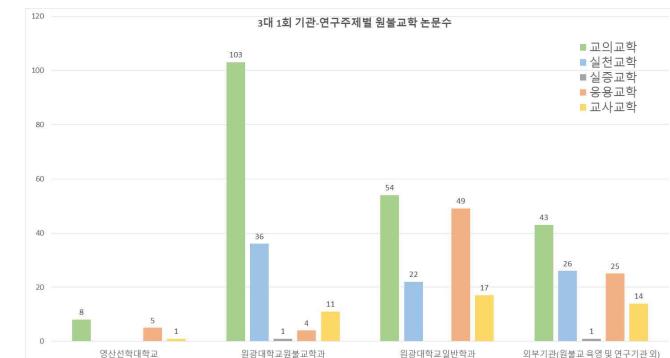
<그림 5> 제3대 제1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및 비율



420편의 연구논문 중 155편(37%)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학과 교수 및 강사) 소속의 연구자들에 의해, 142편(34%)이 원광대학교 내 학과 교수 및 연구자들에 의해, 14편(3%)이 영산선학대학교 연구자들에 의해 게재되었다(그림 5). 또한, 원불교 내 육영 및 교육기관 아닌 외부기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109편(26%)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본 비교에서는 제3대 제1회에 게재된 전체 연구논문의 약 297편(71%)이 원광대학교에서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교립학교(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및 영산선학대학교와 일반학과)의 논문 게재 비율은 74%이고 외부 기관은 26%로 약 48% 차이를 보인다. 또한, 원광대학교의 원불교학과 37% 및 일반학과 34%와 외부 기관 26%와의 비교에서는 각각 11%, 8%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산선학대학교 14편(3%)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34%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제3대 제1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연구 주제에 따른 원불교학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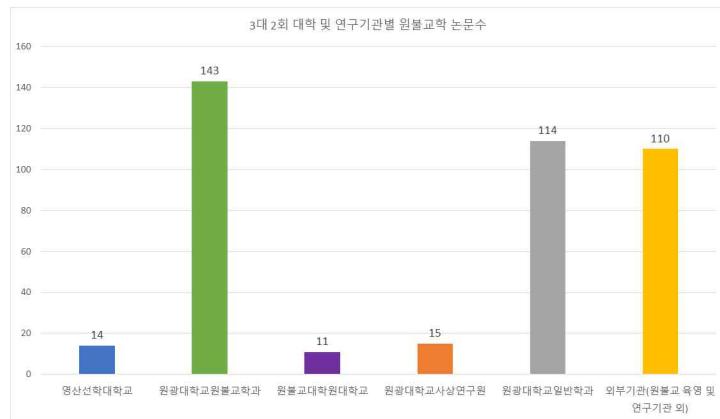


제3대 제1회(1988~1999년)를 중심으로 기관에 따른 연구 주제별 연구논문 성과를 비교하였다.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 교의교학(8편)>응용교학(5편)>교사교학(1편) 순이었으며, 원불교학과의 경우 교의교학(103편)>실천교학(36편)>교사교학(11편)>응용교학(4편)>실증교학(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불교학과를 제외한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경우 교의교학(54편)>응용교학(49편)>실천교학(22편)>교사교학(17편) 순으로, 외부 기관의 경우 교의교학(43편)>실천교학(26편)>응용교학(25편)>교사교학(14편)>실증교학(1편) 순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는 모든 기관에서 교의교학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음을 보여 준다. 특히, 75% 이상의 교의교학 연구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비롯한 원광대학교 내부 연구진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또한 영산선학대학교는 실증교학과 실천교학 연구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영산선학대학교 설립 취지 또는 교육목적에 맞는 연구가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불교대학원대학교는 1997년에 설립되었지만 연구성과가 없어 연구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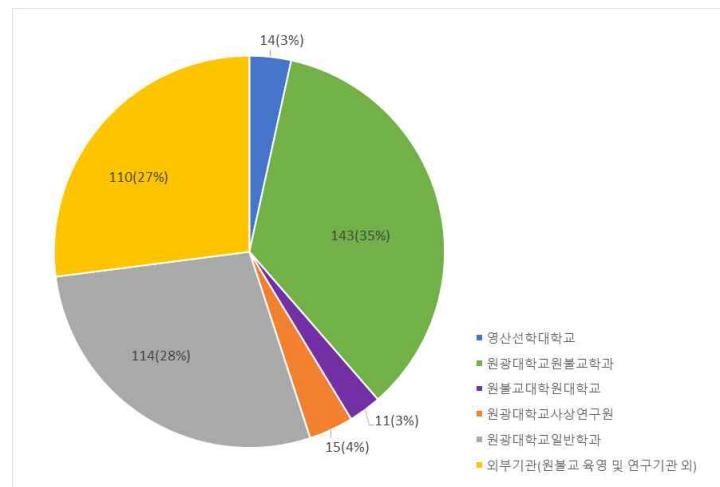
(2) 제3대 제2회 기관별-연구주제별 연구성과

<그림 7> 제3대 제2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제3대 제2회(2000~2011년)에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철학과, 역사학과 등),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 외부의 연구자(교당 및 기관 근무 연구자, 외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에 의한 원불교학 연구논문이 총 407편 게재되었다. 제3대 제2회에는 제1회와 같이 원불교학 연구기관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143편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차지했으며, 원불교대학원대학교가 11편으로 낮은 연구성과를 보였다(<그림 7>).

<그림 8> 제3대 제2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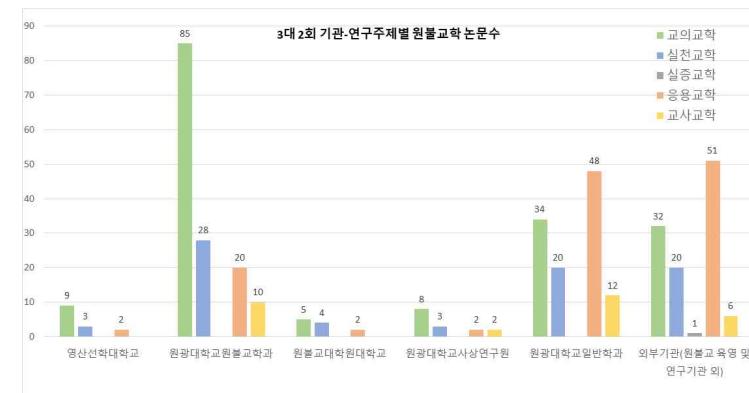


407편의 연구논문 중, 143편(35%)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및 연구자들에 의해, 114편(28%)

이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철학과 등), 110편(27%)이 외부기관, 15편(4%)이 원불교사상연구원, 14편(3%)이 영산선학대학교, 11편(3%)이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제3대 제2회에 게재된 전체 연구 논문의 약 63%(257편)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비롯한 외부학과의 연구자들에 의해 쓰여져, 원광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원불교학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2회의 특징을 보면 제1회 때, 원불교대학원대학교와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설립되었지만 연구 성과가 없었던 것에 반해 제2회에 들어서 연구성과가 나타난 점이다. 이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을 소속으로 한 연구자들의 교학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성과는 제 1저자가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만 해당기관의 연구성과로 집계하기 때문에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연구성과는 원불교사상연구원 소속 또는 상근한 자체 연구원 및 연구 교수가 원불교학 연구를 수행할 경우만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연구성과로 집계된다. 그 외 외부 기관의 연구는 제3대 제1회(109편)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9> 제3대 제2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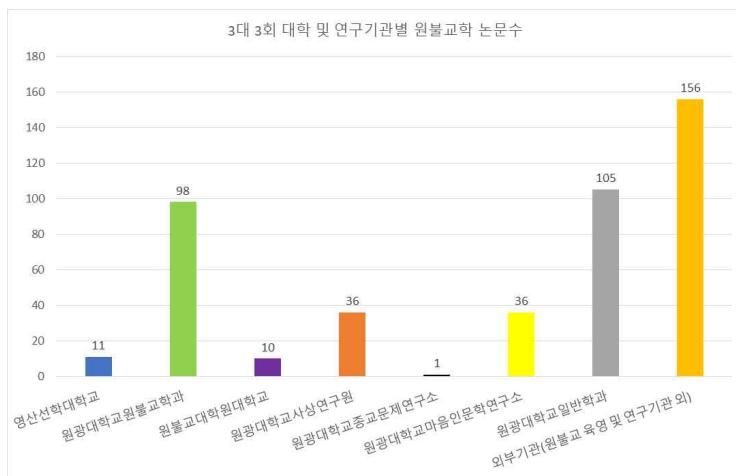
제3대 제2회를 중심으로 기관에 따른 연구주제별 연구논문 성과를 살펴보면,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 교의교학(9편)>실천교학(3편)>응용교학(2편) 순이었으며, 원불교학과의 경우 교의교학(85편)>실천교학(28편)>응용교학(20편)>교사교학(10편)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9).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경우 교의교학(5편)>실천교학(4편)>응용교학(2편)의 순이었으며,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의 경우 교의교학(8편)>실천교학(3편)>응용교학(2편)>교사교학(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9). 원불교학과를 제외한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경우 응용교학(48편)>교의교학(34편)>실천교학(20편)>교사교학(12편) 순이었으며 외부기관의 경우 응용교학(51편)>교의교학(32편)>실천교학(20편)>교사교학(6편)>실증교학(1편) 순이었다(<그림 9>).

연구 결과, 교의교학의 경우 원불교학과의 연구 비중이 여전히 우세하고,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와 외부기관의 경우 응용교학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산선학대학교와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경우, 실천교학이 교의교학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두 기관은 실증교학에 대한 연구논문이 게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립학교 및 연구기관에서는 실증교학 논문이 전무한 상태

이고, 외부기관에서 1편의 실증교학 논문이 게재되었다.

(3) 제3대 제 3회 기관별-연구주제별 연구성과

<그림 10> 제3대 제3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제3대 제3회(2012~2023년)에는 원불교학 연구기관으로 영산선학대학교를 비롯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철학과, 역사학과 등),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 외부의 연구자(교당 및 기관 근무 연구자, 외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에 453편의 원불교학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그림 10>).

<그림 11> 제3대 제3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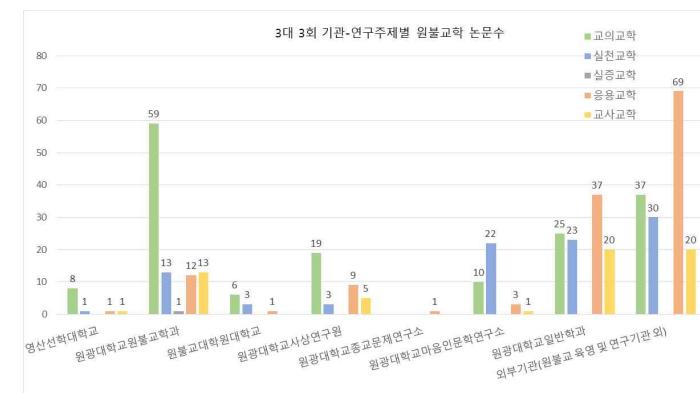
453편의 연구논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56편(34%)이 외부기관 연구자들에 의한 발표되었고, 다음으로 105편(23%)이 원광대학교 내 학과 교수 및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그림 11). 98편(22%)의 연구논문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학과 교수 및 강사)를 소속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36편(8%)의 연구논문이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36편(8%)의 연구논문이 사상연구원을 소속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게재되었다(그림 11). 그 외에 10편(2%)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11편(2%)이 영산선학대학교, 1편의 연구논문이 종교문제연구소 소속의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그림 11>).

제3대 제3회의 특징을 보면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개설되어 원불교학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제3대 제1회, 제2회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논문의 45%(203편)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비롯한 일반학과 연구자들에 의한 발표된 것과 원광대학교 내 연구기관(사상연구원, 마음인문학 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약 17%(7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점이다. 결과적으로, 약 62%(276편)의 연구논문이 원광대학교 소속 연구진들에 의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453편 중, 기관별 논문 수 및 비율에서 외부기관 156편(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원광대학교 내 연구기관들에서 발표된 논문이 외부기관에 비해 약 1.8배 정도 많다는 점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제1회와 제2회와 비교했을 때, 원불교학 연구의 중심이었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들의 연구 게재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1회는 155편(37%), 제2회 143편(35%)이었지만, 제3회 때는 98편(22%)으로 그 비중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 반면에 외부기관의 연구 논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1회는 109편(26%), 제2회는 110편(27%)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제3회는 156편(34%)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에 비해 원불교학 연구자(원불교학과 교수, 철학과 등)의 수가 줄어들어 원불교학 연구가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연구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명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광대학교 내 사상연구원과 마음인문학 연구소의 연구활동으로 원불교학과의 원불교학 연구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림 12> 제3대 3회 대학 및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제3대 제3회의 기관에 따른 연구주제별 연구논문 성과를 살펴보면,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 교의교학(8편)>실천교학(1편)>응용교학(1편)>교사교학(1편) 순으로, 원불교학과의 경우 교의교학(59편)>교사교학(13편)>실천교학(13편)>응용교학(12편)>실증교학(1편)의 순이었다(그림 12).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경우는 교의교학(6편)>실천교학(3편)>응용교학(1편)의 순이었으며,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의 경우 교의교학(19편), 응용교학(9편), 교사교학(5편), 실천교학(3편)의 순으로 계재되었다(그림 1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의 경우 응용교학 1편이, 마음인문학연구소의 경우 실천교학(22편)>교의교학(10편)>응용교학(3편)>교사교학(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원불교학과를 제외한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경우 응용교학(37편)>교의교학(25편)>실천교학(23편)>교사교학(20편) 순이었으며, 외부기관의 경우 응용교학(69편)>교의교학(37편)>실천교학(30편)>교사교학(20편)의 순이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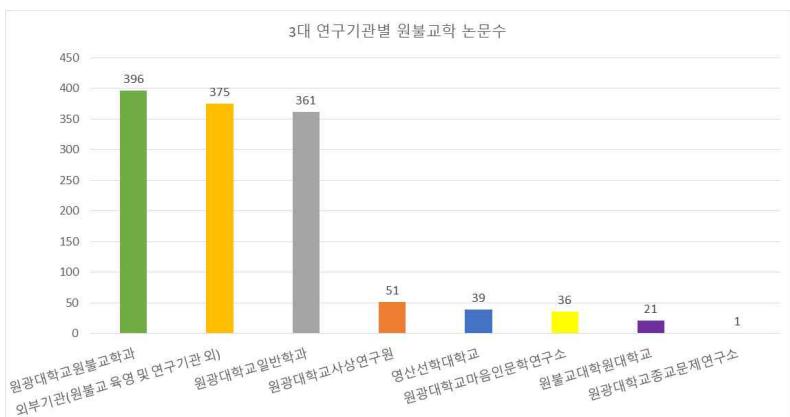
연구 결과, 제3대 제1회부터 제3회까지 원광대학교 내(원불교학과,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 교의교학의 연구 논문 개재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는 제1회 103편, 제2회 85편, 제3회 59편이었으며, 일반학과의 경우는 제1회 54편, 제2회 34편, 제3회 25편으로 연구 논문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은 제2회 8편, 제3회 19편으로 교의교학 논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성과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기관의 응용교학 연구논문의 수는 시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제1회 25편, 제2회 51편, 제3회 69편으로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원불교의 사회적 인식 또는 인지의 증가가 원불교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학 연구논문의 양적 분석

교단 제3대 전반으로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개재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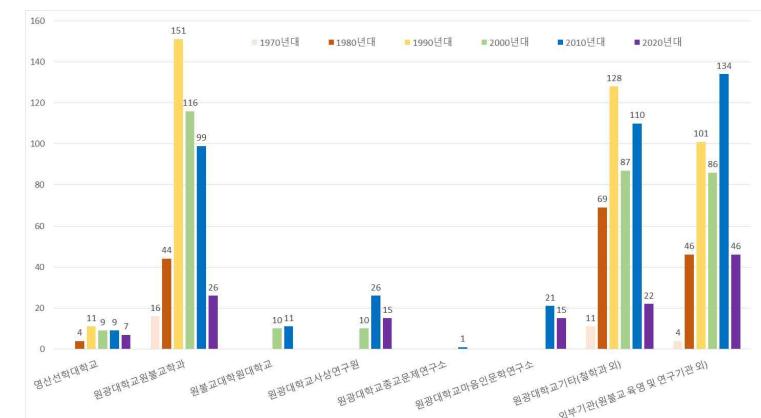
<그림 13> 제3대 기준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논문 수



제3대(1988~2023년) 36년의 연구기관별 원불교학 연구성과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396편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연구기관 외부의 연구논문과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연구논문이 각각 375편과 361편으로 많았다(그림 13). 다음으로 사상연구원이 51편, 그 외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는 40편미만의 연구논문이 계재되었다(그림 13).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는 원불교 기관 내 단일기관으로 연구 논문 개재가 많았지만, 외부기관과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연구논문 개재 수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교립학교 중에서는 원불교학과를 중심으로 한 원불교학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연구성과를 비교해 보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대비 영산선학대학교와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연구 논문 개재 수는 각각 약 10배와 약 19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 14> 기관별 시대에 따른 연구논문 수



<그림 14>는 기관별 시대에 따른 연구 개재 수다. 먼저 영산선학대학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11편)이 계재되었고 2020년대를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원불교학과의 경우 또한 199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151편)이 계재되었고, 2000년대(116편)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는 2000년대에 10편, 2010년대에 11편의 논문이 계재되었으며 2020년대에는 계재된 논문이 없다.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의 경우 201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26편)이 계재되었고, 2023년까지 계재 수(15편)를 보면 2020년대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음인문학연구소의 경우 2010년에 21편의 논문이 계재되었고, 2023년까지 계재 수(15편)를 보면 2020년대에는 2010년대에 비해 많은 연구 성과가 예상된다.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경우 1990년대 가장 많은 논문(128편)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 전후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증가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기관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시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00년대에 잠시 주춤했지만, 2010년대에 가장 많은 134편의 논문이 계재되었다. 2023년까지 계재 수(46)를 보면 2020년대에도 약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기관별 대분류에 따른 연구논문수(1971년~2023년)

기관별 \ 연구주제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영산선학대학교	25	5	0	8	2	40
원광대학교원불교학과	294	79	2	42	35	452
원불교대학원대학교	11	7	0	3	0	21
원광대학교사상연구원	27	6	0	11	7	51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0	0	0	1	0	1
원광대학교마음인문학연구소	10	22	0	3	1	36
원광대학교일반학과	152	70	0	151	54	427
외부기관 (국내 및 연구기관 외)	136	81	2	152	46	417
합계	655	270	4	371	145	1445

지난 53년간 기관에 따른 연구 주제별 연구 성과는 표 7과 같다.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 교의교학(25편)>응용교학(8편)>실천교학(5편)>응용교학(2편) 순으로 게재되었고, 원불교학과의 경우 교의교학(294편)>실천교학(79편)>응용교학(42편)>교사교학(35편)>실증교학(2편) 순으로 게재되었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경우 교의교학(11편)>실천교학(7편)>응용교학(3편)의 순으로 게재수가 높았고,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의 경우 교의교학(27편)>응용교학(11편)>교사교학(7편)>실천교학(6편)의 순으로 게재수가 높았다.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1편의 응용교학 논문이 게재되었고, 마음인문학연구소의 경우 실천교학(22편)>교의교학(10편)>응용교학(3편)>교사교학(1편)의 순으로 게재되었다. 원불교학과를 제외한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의 경우 교의교학(152편)>응용교학(151편)>실천교학(70편)>교사교학(54편) 순으로 게재수가 높았으며, 외부기관의 경우 응용교학(152편)>교의교학(136편)>실천교학(81편)>교사교학(46편)>실증교학(2편) 순으로 높았다.

1) 영산선학대학교의 회대별/연구주제별 연구 성과

<표 8> 제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영산선학대학교 연구논문 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1회	8	0	0	5	1	14
제3대 제2회	9	3	0	2	0	14
제3대 제3회	8	1	0	1	1	11
합계	25	4	0	8	2	40

영산선학대학교는 제3대 제1회에 14편, 제2회에 14편, 제3회에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교의교학 논문이 25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응용교학 8편>실천교학 4편>교사교학 2편>실증교학 0편 순으로 나타났다.

2) 원광대학교 교내 학과의 회대별/연구주제별 연구 성과

<원불교학과>

<표 9> 제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원불교학과 연구논문 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1회	103	36	1	4	11	155
제3대 제2회	85	28	0	20	10	143
제3대 제3회	59	13	1	12	13	98
합계	247	77	2	36	34	396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는 제3대 제1회에 155편, 제2회에 143편, 제3회에 9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회를 거듭할수록 논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의교학의 논문이 247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천교학 77편>응용교학 36편>교사교학 34편>실증교학 2편 순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일반학과>

<표 10> 제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원광대학교 철학과 등 기타학과 연구논문 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1회	54	22	0	49	17	142
제3대 제2회	34	20	0	48	12	114
제3대 제3회	25	23	0	37	20	105
합계	113	65	0	134	49	361

원광대학교 철학과를 비롯한 일반학과는 제3대 제1회에 142편, 제2회에 114편, 제3회에 10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회를 거듭할수록 논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응용교학의 논문이 134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의교학 113편>실천교학 65편>교사교학 49편>실증교학 0편 순으로 나타났다.

3)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회대별/연구주제별 연구 성과

<표 11> 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논문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2회	5	4	0	2	0	11
제3대 제3회	6	3	0	1	0	10
합계	11	7	0	3	0	21

원불교대학원대학교는 제3대 제2회에 11편, 제3회에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교의교학의 논문이 11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천교학 7편>응용교학>실증·교사교학 0편 순으로

로 나타났다.

4) 원불교사상연구원의 회대별/연구주제별 연구 성과

<표 12> 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논문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2회	8	3	0	2	2	15
제3대 제3회	19	3	0	9	5	36
합계	27	6	0	11	7	51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은 제3대 제2회에 15편, 제3회에 3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교의교학의 논문이 27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응용교학 11편>교사교학 7편>실천교학 6편>실증교학 0편 순으로 나타났다.

5) 그 외 원불교 연구기관의 회대별/연구주제별 연구성과

<마음인문학 연구소>

[표 13] 제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논문 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3회	10	22	0	3	1	36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제3회에 3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실천교학의 논문이 22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의교학 10편>응용교학 3편>교사교학 1편>실증교학 0편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문제연구소>

[표 14] 제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종교문제연구소 연구논문 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3회	0	0	0	1	0	1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제3대 제3회에 응용교학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6)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 외의 회대별/연구주제별 연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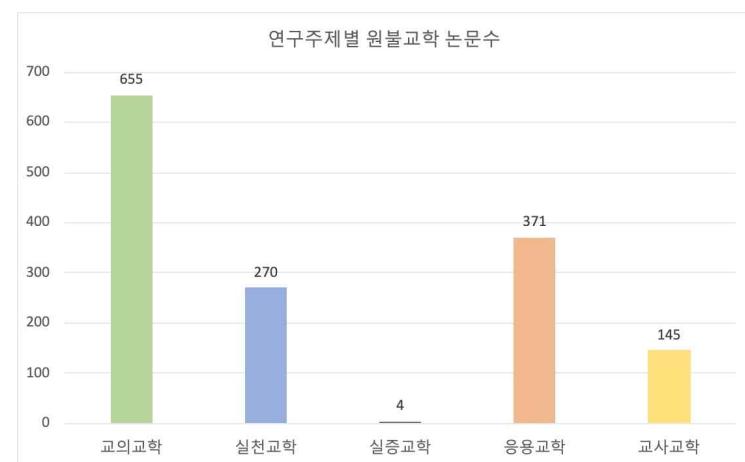
<표 15> 3대 회별 대분류에 따른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 외 연구논문 수

회별 대분류별 구분	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	합계
제3대 제1회	43	26	1	25	14	109
제3대 제2회	32	20	1	51	6	110
제3대 제3회	37	30	0	69	20	156
합계	112	76	2	145	40	375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 외의 외부기관에서는 제3대 1회에 109편, 제2회에 110편, 제3회에 156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회를 거듭할수록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응용교학의 논문이 145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의교학 112편>실천교학 76편>교사교학 40편>실증교학 2편 순으로 나타났다.

다.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원불교학 연구논문의 양적 분석

<그림 15> 대분류에 따른 원불교학 연구논문 수(1970년~2023년)



지난 53년간 교의교학 655편, 응용교학 371편, 실천교학 270편, 교사교학 145편, 실증교학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그림 15). 연구 주제별로 비교하였을 때, 교의교학의 논문 수(655편)가 가장 많고 실증교학의 연구논문 수(4편)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불교의 근간이 되는 원불교 교리 해석을 위한 교의교학 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정확한 인과관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원불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원불교와 타학문과의 융합된 응용교학 논문의 게재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행·신앙의 경험·관찰·실험 등을 통한 증명 측면의 연구 즉, 실증교학 관련 논문 게재가 가장 적게 게재되었다.

<대분류에 따른 시대별 연구논문 수>

<그림 16> 대분류에 따른 시대별 원불교학 연구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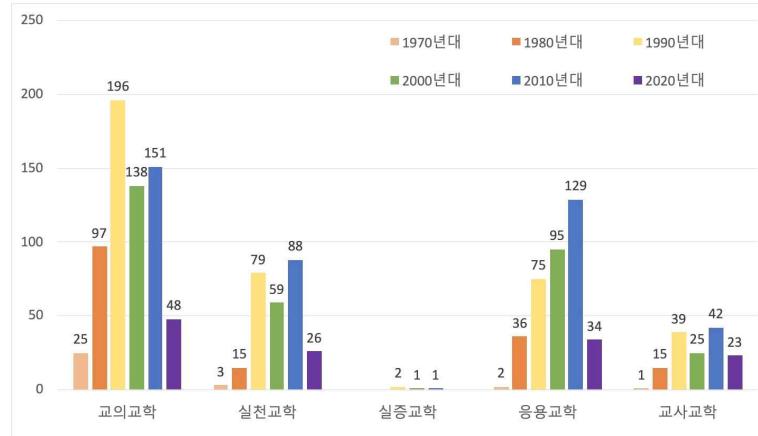


그림 16은 시대별 연구 주제에 따른 원불교학 연구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교의교학 논문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여 1990년대 가장 왕성한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1980년과 1990년대를 비교해볼 때, 약 100편의 교의교학 논문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2000년대부터 감소하여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실천교학 논문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증가 후, 2000년대 감소를 보였지만 2010년대 다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2010년대가 많은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대 즉, 2023년까지의 결과를 보면 26편으로 1년 단위, 평균 8편으로 추정하면 2010년대의 게재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용교학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0년대 연구 게재 결과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교학은 1990년대와 2010년에 다른 년대에 비해 다소 많은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증교학은 전 년대에 걸쳐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교의교학 논문 게재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응용교학 논문 게재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실증교학의 연구는 전 시대에 걸쳐 미비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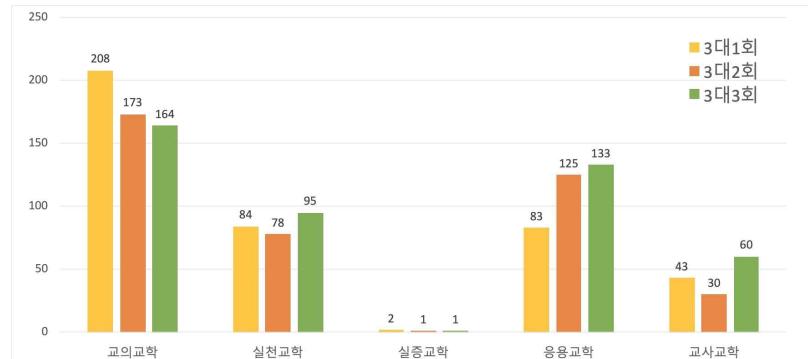
<제3대 중심 연구 주제별 비교>

<그림 17> 대분류에 따른 원불교학 연구논문 수(제3대 기간 중심)



교단 제3대 전반의 결과로 교의교학 545편, 응용교학 341편, 실천교학 257편, 교사교학 133편, 실증교학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그림 17). 주제마다 시기 연구 주제별로 비교하였을 때, 교의교학의 논문 수(545편)가 가장 많고 실증교학의 연구논문 수(4편)가 가장 적다.

<그림 18> 대분류에 따른 대회별 원불교학 연구논문 수



연구 주제별 3대 회별에 따른 변화를 통한 논문 게재수를 보면, 교의교학은 회가 증가할수록 게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실천교학과 교사교학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며, 응용교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8>).

다음은 3대를 중심으로 대분류별 중분류와 소분류에 따른 연구 성과를 비교하였다.

<표 16> 교의교학을 중심으로 한 중분류/소분류 연구논문 수

구분	일원상론	신양론	수행론	교리론	사대강령	경전학	원불교관	철학사상	교단학
일원상	28								
사은		29							
사요		4							
신양		9							
삼학			16						
팔조			1						
수행			10						
개교묘어				4					
교리도				2					
고락법문				0					
심고기도				1					
일상수행의요법				2					
염불법				2					
병든사회치료법				1					
무시선법				15					
좌선법				19					
법의등급				2					
참회문				2					
일기법				3					
의두성리				11					
계문				2					
훈련법				8					
최초법어				4					
영육쌍전				3					
교리개론				26					
사대강령				2					
정전					6				
대종경					8				
정산종사법어					3				
대산종사법어					3				
초기교서					4				
불조요경					1				
세전					3				
예전					5				
기타					2				
우주관						4			
경륜관						32			
개벽사상관						9			
윤리도덕관						20			
교육관						19			
생명관						20			
생사관						4			
자연환경관						8			
인간관						20			
교단관						14			
불교							42		
유교							19		
도교							8		

동양철학								20	
서양철학								6	
한국철학								15	
교단학									44
합계(총 545편)	28	42	27	107	2	35	150	110	44

교의교학 분야에서는 일원상의 진리 자체에 관한 중심 연구로서 일원상론은 28편, 일원상 진리와 사은 및 사요의 관계, 신양 의미, 신양 형성 및 변천, 호칭, 신양성 등 신양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신양론은 42편, 일원상 진리와 삼학 관계 및 정기·상시 훈련의 의의, 선법(禪法)의 원리와 형성 등 수행의 전반에 관한 수행론은 27편, 정전(正典)에 제시된 교리 중심의 교리론은 107편, 교리와 교단의 지향 점을 집약한 사대강령 2편, 원불교 9종 교서로 교서의 문헌 자체에 관한 연구로 경전학 35편, 원불교 교리에 바탕한 사상관 연구인 원불교관 150편, 유·불·도교 및 한국 신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철학·사상 110편, 교단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다룬 교단학 44편이 게재되었다(표 16).

연구성과별로 비교하면, 원불교관(150편), 철학사상(110편), 교리론(107편), 교단학(44편), 신양론(42편), 경전학(35편), 일원상론(28편), 수행론(27편), 사대강론(2편)의 순으로 많은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단일 소분류 주제로는 교단학(44편), 불교(41편), 사은(29편), 일원상(28)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천교학의 중분류/소분류>

<표 17> 실천교학을 중심으로 한 중분류/소분류 연구논문 수

구분	교화학	교단운영학	의례·의식학
교화단	9		
일반교화	6		
청년교화	8		
청소년교화	4		
해외교화	6		
교화학	44		
교도훈련	2		
마음공부	61		
설교	11		
평화학	38		
종교연합운동	13		
교도		3	
교무		19	
법제		4	
조직		8	
행정		2	
교례			2
가례			4
성가			3
천도			9
시축이제			1
합계(총 257편)	202	36	19

실천교학 분야에서는 원불교 교화에 관한 체계·이론·역할 및 기능 등을 연구한 교화학 202편, 교단을 구성하는 인적·조직·교정(행정) 등을 연구한 교단운영학 36편, 교단 의례 또는 의식 연구 19편이

제재되었다(표 17).

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주제로 보면, 교화학 202편에서 마음·공부 61편>교화학 44편>평화학 38편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도훈련 논문이 2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다. 교단운영학 36편에서는 교도 19편>조직 8편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 논문이 2편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의례·의식학 19편 중, 천도 9편>가례 4편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축이제 논문이 1편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단일 소분류 주제로만 보면 실천교학 분야에서 마음·공부(61편), 교화학(44편), 평화학(38편)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실증교학 종분류/소분류>

<표 18> 실증교학을 중심으로 한 종분류/소분류 연구논문수

구분	신앙수행체험	견성
신앙수행체험	3	
견성		1
합계(총 4편)	3	1

실증교학 분야는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직접적인 체험하고 이를 통해 변화 상태 등의 연구인 신앙수행체험 논문이 3편, 진리의 깨달음 또는 깨침의 실제를 연구한 견성 논문이 1편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응용교학 종분류/소분류>

<표 19> 응용교학을 중심으로 한 종분류/소분류 연구논문 수

구분	국어국문학	교육학	경제학	문화예술	민속학	비교종교학	건축학	사회복지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상담학	연구방법	의학	정치학	행정학	해석학
언어	1															
문학	19															
종교교육, 일반교육		59														
경제학			0													
공연예술				3												
출판					5											
다도						2										
미술							4									
의복								1								
기타									12							
민속학										18						
동양종교											70					
서양종교												2				
교단, 교당건축												14				

사회복지															37		
종교사회학, 일반사회학															38		
신문방송학															8		
상담학															3		
심리학															11		
연구방법															2		
연구사															16		
의학															2		
과학															7		
정치학															0		
행정학															1		
종교/문화/사회해석학															6		
합계(총 341편)	20	59	0	27	18	72	14	37	38	8	14	18	9	0	1	6	

응용교학 분야는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원불교 또는 원불교학이 사회생활에 직접 응용되거나 관련된 연구로 일반적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기준 및 분류와 연관된 학문연구를 말한다. 종분류로 보면, 비교종교학(72편), 교육학(59편), 사회학(38편), 사회복지(37편), 문화예술(27편), 국어국문학(20편), 민속학(18편), 연구분석 및 방법(18편), 심리상담학(14편), 건축학(14편), 의학과학(9편), 신문방송학(8편) 해석학(6편), 행정학(1편)의 순으로 많은 연구가 게재되었다(<표 19>).

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주제로 보면, 비교종교학 72편 중, 주로 동양종교와 비교한 연구(70편)가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학 59편에서는 종교교육연구(59편)가 많이 게재되었다. 사회복지와 사회학에서는 각각 37편, 38편의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다. 문화예술 27편 중에는 기타 범주와 출판에 관한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다. 다음으로는 국어국문학과의 관련 것으로 특히 문학 연구(19편)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연구 분석 및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사 관련 연구(16편)가 많이 게재되었다. 심리상담학 부분에서는 심리학 관련 연구(11편)가, 의학과학은 과학 관련 연구(7편)가 많았으며, 특이한 점은 경제 및 정치 관련 연구가 1편도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교학 종분류/소분류>

<표 20> 교사교학을 중심으로 한 종분류/소분류 연구논문 수

구분	교단사	교리사	문헌사	시대사	유물사	유적사	인물사
교단사	9						
조직변천	3						
교리변천		13					
기록/보고서			30				
한국사/시대사/종교사				10			
유품/성비/성탕					2		
건축/성지						7	
교조							16
선전							43
합계(총 133편)	12	13	30	10	2	7	59

교사교학 분야는 원불교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로 인물사(59편), 문헌사(30편), 교리사(13편), 교단사(12편), 시대사(10편), 유적사(7편), 유물사(2편)의 순으로 많은 연구가 게재되었다(표 20).

중분류에 따른 소분류 주제로 보면, 교단사에서는 주로 교단의 변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연구 9편이 있었으며, 인물사 연구에서는 선진 또는 스승 관련의 연구(43편)가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물사 관련 연구(2편)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단일 소분류 주제로 보면 선진(43편), 기록 및 보고서(30편), 교조(16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선진 관련의 인물사와 기록물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V. 원불교학 연구 성과의 평가 및 제언

본 연구는 원불교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원불교학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원불교학을 5개의 대분류(교의교학, 실천교학, 실증교학, 응용교학, 교사교학)로 나누었고 각 대분류별 중분류와 소분류를 나누었다. 교의교학은 9개의 중분류와 54개의 소분류로, 실천교학은 3개의 중분류와 24개의 소분류로, 실증교학은 5개의 중분류와 5개의 소분류로, 응용교학은 17개의 중분류와 29개의 소분류로, 교사교학은 7개의 중분류와 9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시대별(3대1회, 3대2회, 3대3회), 기관별(원불교학과, 영산선학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사상연구원, 마음인문학연구소, 원광대학교 일반학과, 외부기관),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주제별로 원불교 3대 36년간의 연구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시대별 분석결과, 원불교학이 시작된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4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원불교 3대에는 약 1,28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제3대 제1회에는 420편, 제3대 제2회에는 407편, 제3대 제3회에는 45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제3대 제2회에 다소 감소하였던 연구논문수가 3대 3회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3대 제1회, 제3대 제2회와 비교하였을 때 12년간의 30~40편의 차이는 연 3~4편의 차이에 불가한 수치로 원불교학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말하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기관별 분석결과, 3대 36년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396편, 원불교 육영 및 연구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375편,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에서 361편,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에서 51편, 영산선학대학교 39편,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36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21편,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1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단일 기관으로서 원불교학과는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나 3대 1회 155편(37%)에서 제3대 제3회에는 99편(22%)으로 연구성과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 또한 제3대 1회 142편(34%)에서 3대 3회 105편(23%)로 연구성과와 원불교학의 연구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원광대학교 내 연구기관인 사상연구원과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으로 그 감소된 부분이 보완되고 있다. 그 외 영산선학대학교(39편)와 원불교대학원대학교(21편)의 경우는 지난 36년간 매년 1편 정도의 연구논문만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종교문제연구소의 경우는 단 1편의 논문이 종교문제연구소 소속 연구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3대 36년간 교의교학은 545편, 실천교학은 257편, 실증교학은 4편, 응용교학

은 341편, 교사교학은 133편이 발표되었다. 교의교학의 연구논문은 3대 1회 208편에서 3대 3회 164편으로 감소하고 있고, 응용교학은 3대 1회 83편에서 3대 3회 133편으로 원불교학의 외부학문과의 결합 및 교리적 응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교학은 3대 3회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3대 각 회를 걸쳐 큰 차이는 없다 사료된다. 교사교학의 경우는 3대 3회에 60편으로 3대 2회(30편)에 비해 연구성과가 증가하였다. 실증교학의 경우는 3대 기간 동안 단 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실증교학은 원불교 교리의 체득화, 신앙체험, 견성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원불교 교리에 따라 실천하였을 때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거나 수행 및 신앙을 통한 체험을 발표하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불교학 발전에 있어서 5가지 연구주제 중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원불교학 성과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불교학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연구진들이 고민한 제언이다.

1. 원불교학 연구의 지속가능성

원불교학 연구는 원광대학교 교학대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역사학과 등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나, 제3대 제2회와 제3대 제3회를 겪으면서 점차 교학대학과 원광대학교 내 일반학과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와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3대 3회에 원불교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100편미만으로 제3대 제1회에 비해 약 50편 이상이 감소하였다. 또한 철학과를 비롯한 원광대학교 일반학과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 또한 제3대 제1회 142편에서 제3대 제3회 105편으로 약 40편 가까이 감소하여 원광대학교 내부 학과 교수들에 의해 발표되었던 원불교학 논문의 수가 제3대 제1회 297편에서 203편으로 90편 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불교학과를 비롯한 철학과 역사학과 등 원불교학 연구가 가능한 학과 교수들의 감소가 원불교학 연구의 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행히 교학대학에서 감소된 부분은 원광대학교 내에 연구기관인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사상연구원,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보전해 주고 있지만 연구기관을 포함한 원광대학교 내부에서 발표되는 연구논문의 수와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불교학 연구가 가능한 연구재원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천교학 연구의 활성화

교의교학 논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불교 교화와 직결되는 실천교학의 연구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 실천교학의 중심 연구기관은 실천교학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원불교대학원대학교와 실천교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마음인문학연구소이다. 실제로 마음인문학 연구소의 36편 연구논문 중 22편의 약 61%는 실천교학 논문이었다. 하지만 매년 많게는 수십 편의 실천교학 논문이 발표되는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3대 기간 발표된 연구논문의 수는 21편에 불과하다. 이는 석사 학위논문으로만 발표되고 학술지 연구논문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위논문으로서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연구논문으로까지 수정 및 발전시킬 필요성의 부재 또는 학술지에 게재될 연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실천교학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잠재성이 크고, 대학원 예비교무가 1년 이상 준비하여 발표된 학위논문인 이상 이를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교단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설립취지가 교화현장에 적응하고 교화역량을 갖춘 예비교무를 만드는 것인 만큼 모든 학위논문을 실천교학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발표 논문들 중 몇 편의 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교학 논문들은 이론과 논리를 중요시 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어 실천교학 논문을 게재시킬 수 있는 학회지를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지금은 학술지로서의 기능이 약해있는 『원불교학』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천교학 논문일지라도 대학원 대학교 교수교무들의 지원과 학술지의 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논문의 구조 및 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연구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증교학 연구의 집중화

제3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연구가 미비한 분야는 실증교학이다. 실증교학이란 교회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회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교도 또는 비교도에게 적용되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거나 원불교 교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연구분야이다. 특히 원불교가 지향하고 있듯이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과 이를 증명해 가는 연구 방법론 또는 개발 연구가 절실히 있다. 다시 말해 종교를 통한 삶의 변화 등을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증교학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보면, 영산선학대학교와 마음인문학연구소가 될 수 있다.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는 예비교무들의 11과목을 중심으로 교리 실천을 통해 내외의 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연구재원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산선학대학교 같은 연구 환경과 마음인문학연구소 또는 심리상담학 연구소 등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결합하여 공동연구가 가능하게 된다면 실증교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회 침체기의 방안으로 실천교학과 실증교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교정 정책 시행의 도구적 기능과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9> 원불교학 연구 주제의 관계도



4. 원불교학과 교화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원불교학의 최종 목표는 단순 이론적 정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학 연구를 통해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교화 현장에 원불교학의 정립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현장에 적용되고 삶이 변화되어 이것이 다시 실천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하여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림 19). 원불교학 연구를 통해 교화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원불교

학의 연구 방향의 일부분은 교화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총부의 교화연구소, 교구사무국, 정책연구소, 대학원대학교 등 교화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기관에서 현장의 요구를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원불교학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자의 전공 또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부분에 치우쳐 수행되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연구자의 여전에 따른 연구뿐만 아니라 총부 및 교화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네트워크 및 연구재원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5. 원불교학 연구 기반의 교단 정책과 교단적 영향 창출

교단의 원활한 교정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책활동 과정은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과 정책의 내용 및 집행인 '정책입안 및 활동'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평가'로 나뉜다. 이를 보면, 교단정책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원불교학 전반의 연구가 전제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단의 3대 사업인 교회·교육·자선복지를 위해서는 해당 문제와 의제를 찾아 이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전반적인 정책 활동이 순환과 투여(구조, 예측, 첨검, 처방, 평가 연구)로 진행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단에서 육영기관 중심의 연구기관과 중앙총부 연구기관이 존재하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이에 그 목적과 목표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반드시 교단 정책과 연계하여 교회 발전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단은 제3대 시작부터 '교단 설계' 또는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책 시행을 도모해 왔다. 특히 매회 설계 수립 내용 중 연구 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원불교학 연구에 기반한 정책 입안과의 연관성을 부족했다. 이는 각 회에 진행된 평가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교단 정책이 시행과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원불교학 연구에 기반한 정책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경향신문』 『원불교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카톨릭대사전』
『원불교사상』 『원불교학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정신개벽』 『한국종교』

2. 단행본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원불교 100년 총람』3, 2017.

3. 논문

김성장, 「원불교학 연구의 당면 과제」, 『원불교학』9, 2003.
, 「원불교학의 형성과정과 개념」, 『원불교개교백주년 기획』6, 2009.
, 「원불교학의 범주와 개념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5, 2013.
양은용, 「원불교 학술활동의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연구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47, 2011.
, 「원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67, 2016.
오세영, 「원불교사회복지의 연구 동향과 학문적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0, 2011.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9, 2021.